

제3전선, 정보전쟁 이스라엘 정보 DNA의 기원

# 나라보다 정보조직 먼저 창설, 이스라엘 건국 이끌었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모사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래 정보기관의 전통적 역할은 적의 기습공격을 미리 파악해 국가가 먼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하마스·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적 수뇌부를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등 전쟁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을 반격하면서 정보기관을 집중 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정보전을 더 이상 군사외교에 이은 제3전선이라 칭할 게 아니라 제1전선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 적 지휘부 집중 타격, 지휘체계 무력화

무선호출기(삐삐)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하도록 해 헤즈볼라에 인명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통신망에 타격을 가한 건 작은 사례에 불과했다. 모사드는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적 수뇌부를 정밀 제거하는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보안이 철통같아서 '추적할 수 없는 유령'이라고 불렸던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에와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를 정확하게 타격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최고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각 분야 지도자들도 정밀하게 제거했다. 하마스의 정치책임자 자카리아 마브르, 경제책임자 자와드 사말라,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푸아드 슈크르 등 이름을 모두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험과 리더십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반격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손바닥 보듯 정확한 정보로 핀셋처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은 잔존 지도자들에게 자신도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 저항 활동을 강간히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스라엘이 정보를 기반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쟁의 실질적 주역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대표적이다.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전쟁을 예고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생사의 공포가 몰려왔다. 당시 이스라엘 국력은 이집트·시리아 등 아랍 5개국 연합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다.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의 패전이 자명해 보였다. 이스라엘 여론도 "싸울 준비는 돼 있지만, 자살할 준비는 안 돼 있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지도부는 전쟁을 택했다. 정보기관을 믿었기 때문이다. 1·2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향후 다시 닥칠 전쟁을 대비해 이집트, 시리아 등 반이스라엘 국가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해 놓고 있었다 (2023년 5월 27일자 중앙SUNDAY 17면). 이 정보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불과 6일 만에 기적처럼 전쟁을 끝냈다. 세계가 놀랐다.

더 거슬러 올라 가보자. 이스라엘 건국과정에서 보여준 눈물겨운 정보활동은 모사드의 정보DNA가 어디서 나왔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아직 나라가 없던 시절엔 비밀 정보조직이 '보이지 않는 국가' 역할까지 했다. 가장 급선무는 '국민 모으기'였다.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밀 정보조직은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는 모든 일을 했다. 이를 위해 모사드의 모태가 된 '모사드 레 알리아 벳 (Mossad le Aliyah Bet)'을 1938년 창설해 수송



1 이스라엘 건국 과도기 정보조직들은 유대인들을 지중해 근처 프랑스 쌍 제름이나 그랑 아레나스 항구에 비밀리에 집결시켜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2 이스라엘 정보력의 최대 승리로 평가되고 있는 3차 중동전쟁, 시리아 골란 고원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3 이스라엘 건국 당시 비밀 정보조직이 비락작전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비밀리에 구입한 전투기.

**모사드 레 알리아 벳 (Mossad le Aliyah Bet)**  
 '해외 유대인들을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기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임무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수집, 비밀작전 등은 후일 모사드 운영방식에 많이 반영됐고, 요원들도 모사드에 많이 흡수돼 모사드의 모태로 평가된다. 모사드 명칭도 여기서 유래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해외를 담당하는 모사드(Mossad), 국내를 담당하는 신베트(Shinbeit), 군 정보를 담당하는 아만(Aman)으로 구성돼 있다. 모사드의 정식명칭은 '정보특수작전국'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pecial Operations, המוסד למודיעין ולתפקידים)이다.

선박을 확보하고 위조여건을 마련하는 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여서 고물선 한 척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가

1938년 만든 조직이 배·항구 확보 유대인 45만 명 안전한 이주 지원 영화 촬영 위장해 무기·전투기 구입 비밀 활동 경험 모사드 그대로 전수 '추적 불가한 유령'까지 핀셋 제거 제3전선 넘어 전쟁 주도하는 양상

녹이 스는 헌 배를 구했다. 배만 구해서 뭘 일이 아니었다. 지중해와 연결된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안에 안전한 항구를 확보해야 했다. 수천명의 이주 대기자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당시 유럽은 전시 식량통제를 하고 있었다. 모사드 레 알리아 벳은 국가를 대신해 이런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직접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40년까지 45만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무기도 비밀리에 구입했다. 초기 이스라엘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아랍의 위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1948년 1차 중동전쟁 이후 유엔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에 무기 금수조치를 내렸다. (안보리 결의 50호) 그래서 건국 당시 과도기 정보조직인 '셰이(Shai)'가 움직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 잉여물자를 민간에 불하하는 정책



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필요한 무기를 비밀리에 구입했다. 미 군용기를 몰래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비락 작전(Operation Balak)이 대표적이다. 이 작전을 위해 위장 영화회사를 설립한 뒤, 뉴질랜드 공군을 소개하는 영화를 찍는다는 구실로 군용기를 구입해 이스라엘로 빼돌렸다. 이렇게 확보한 비행기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토대가 됐다. 이스라엘 건국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눈물겨

운 비밀활동 경험은 건국이후 1949년 창설된 모사드에 전수돼 모사드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동적 정보활동은 건국과정에서 배태됐으며, 이후 수차례 국가위기를 겪으면서 제도적으로 발전했다. 더욱이 적박한 안보환경 속에서 유대국가들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라는 책임감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성격의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는 2023년 발간한 자서전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 폼페이오는 모사드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작전 능력, 특히 정보와 군사력을 결합한 정밀 타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동질서 관리에도 크게 기여했다고술했다.

**AI 등 활용 모사드 활동·역량 무한진화**  
 물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무소불위적 정보활동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지상주의는 인도적,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모사드의 거친 정보활동은 우방도 등을 돌리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격성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같은 비대칭 위협은 정밀한 정보를 토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정보기관이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정보기관의 역할 확대를 원한다. 정보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한 방송사가 청취자에게 "만약 전쟁위기가 다시 오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모사드와 함께 있고 싶다"고 답했다는 일화는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공포감 조성을 통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강공 스텐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모사드 공격자장을 지낸 비락(Barak)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모사드는 암살도 불사한다는 과격한 이미지는 반이스라엘 세력에게 심리적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한 데서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AI),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정보에 접목할 경우 모사드의 활동과 역량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능하기조차 어렵다. 2010년 이란의 핵시설 파괴를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최첨단 스텝넷(Stuxnet)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 좋은 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설치된 원심분리기를 통제하는 특수 컴퓨터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이란의 원심분리기 수천 대 중 절반을 멈추게 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임무, 정체성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모든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같은 공격성과 야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 안보환경이 척박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활동에 자주 눈이 간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최성규 국가정보원에서 장기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 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